

펄프분석을 통한 위조 유가증권 식별

손창만¹⁾ · 이재수¹⁾ · 김동욱²⁾ · 이영수²⁾ · 양후열²⁾

1) 한솔제지(주) 기술연구소 · 2) 국립과학수사연구소

1. 서 론

최근에는 시중 또는 여행자들을 통하여 들어 온 고액의 위조유가증권에 대한 신문기사 등이 발표되고 있는 실정이다. 이전부터 시중에 미달리화를 포함하여 고액의 채권 등의 위조화폐와 증권이 유통되고 있다. 이 중 미달리화의 경우는, 경험에 의한 육안식별과 촉감 등으로 식별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.

이에 본 발표자들은 고액의 유가증권의 진위를 판별, 감정하기 위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부터 의뢰받은 위조로 의심되는 유가증권의 원지를 구성하는 섬유와 형태학적 및 물리적 특성분석을 실시하였다.

이 결과를 기 유통되고 있는 유가증권지의 구성성분과 비교분석하며, 나아가 진위를 판단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위조여부를 판명하는 방법을 확립하고자 하였다.

2. 결 과

위조로 의심되는 유가증권을 구성하는 원지의 섬유특성을 분석한 결과, 일반적으로 알려진 지폐 또는 진본의 유가증권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섬유들이 다량 함유된 사실을 알 수 있었다. 또한 원지를 제조하는 방법 및 기본 강도적인 실험 결과에서도 알고 있는 결과와는 크게 다른 결과를 나타내어 감정에 시용된 유가증권은 위조로 판단되었다.

앞으로 더 다양해지고 교묘하게 위조된 유가증권이 유통될 가능성도 예상되고 있으나, 기존의 육안검사와 촉감에 의한 판별에 더하여 원지를 구성하는 섬유의 분석을 통하여 보다 정확한 진위 판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.

※ 본 내용의 일부는 제7회 (사)한국법과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에서 발표되었다.